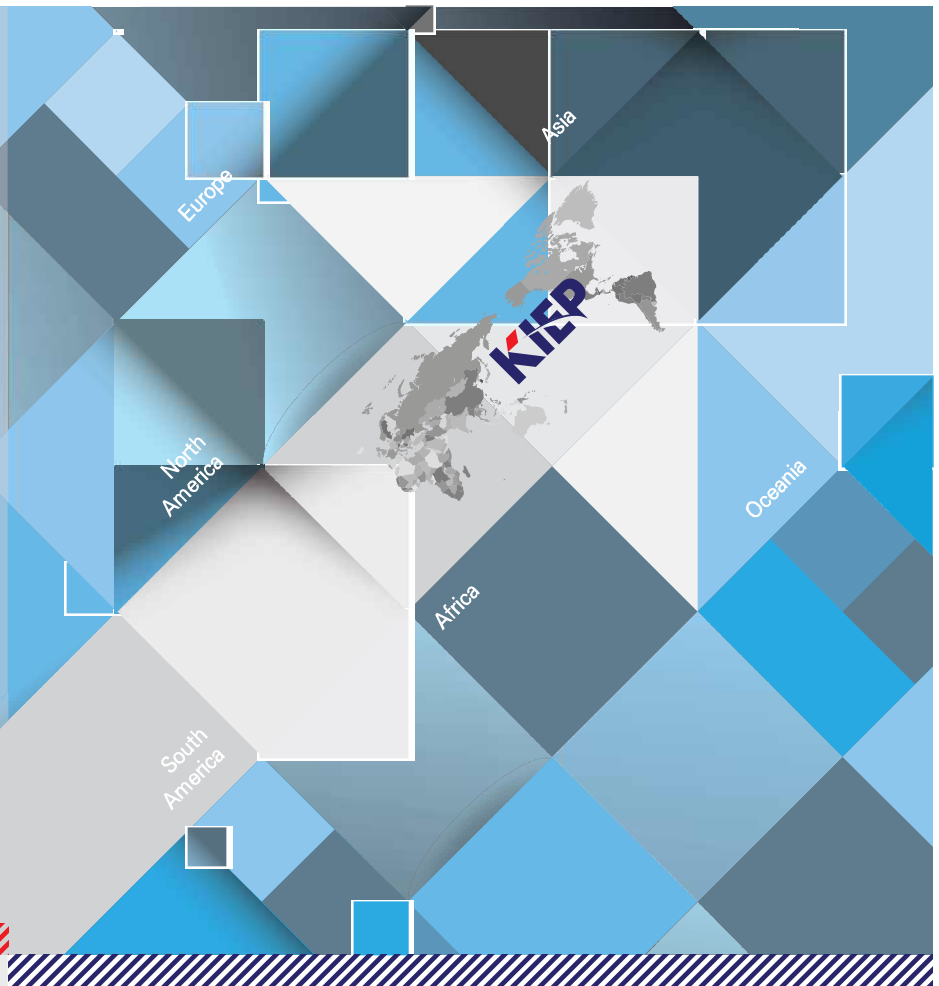




KIEP 기초자료
18-19

2018년 9월 6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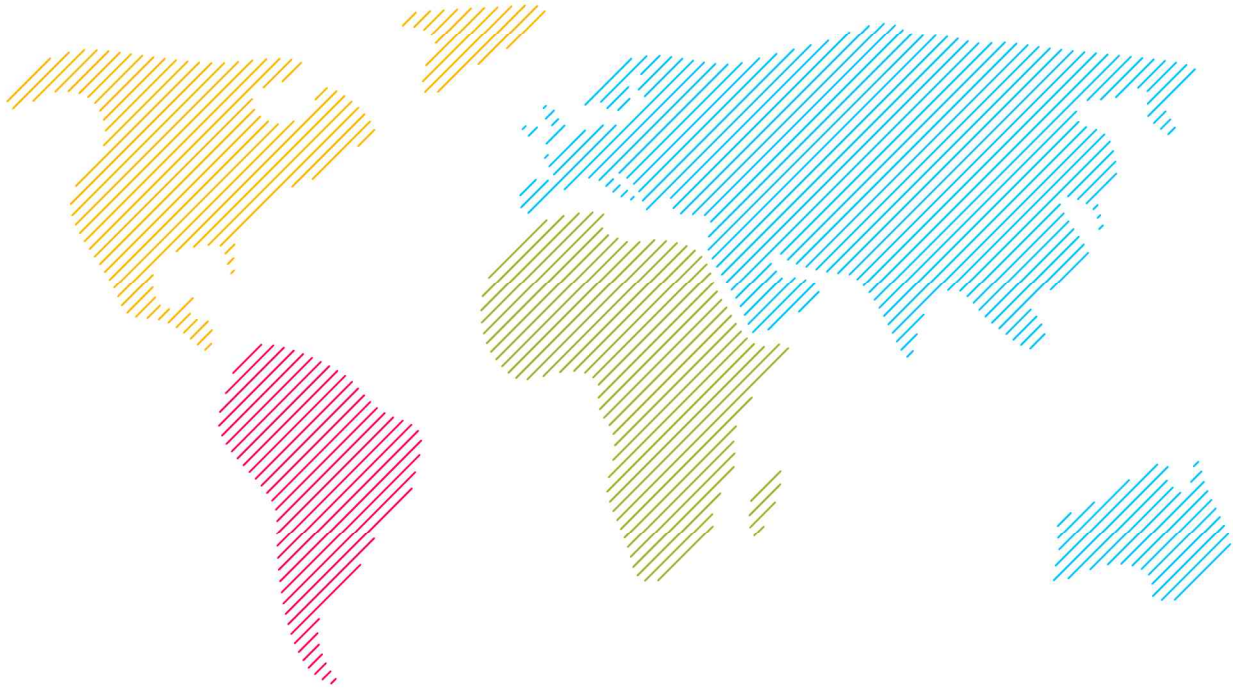
한·인도네시아 협력 현황과 신남방정책 과제

신민이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
(mlshin@kiep.go.kr, 044-414-1154)

한·인도네시아 협력 현황과 신남방정책 과제

요약

- ▶ [개괄]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, 최근 양국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기회 요인을 분석해 신남방정책 과제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.
- ▶ [무역 및 투자]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이지만, 양국간 그 중요도는 정체 또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.
 - 2017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대 교역국이며,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7대 교역국임.
 - 201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교역액은 308억 달러였으나, 2017년에는 18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.
 - 2017년 한국은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중 5위로 기록되었으며,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중 34위를 차지함.
 - 201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13.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, 2017년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2011년 투자액의 절반 수준인 6.7억 달러에 그침.
- ▶ [금융 및 인적교류] 최근 양국은 금융업이나 인적교류 등 특정 분야에서 협력이 증가함.
 - 2013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금융업 투자금액은 1,500만 달러, 전체 투자 중 비중은 3.3%에 불과했으나, 2017년에는 3억 2,370억 달러, 전체 투자 중 비중은 48.4%를 차지함.
 - 방문객 및 유학생 숫자로 살펴본 양국 인적교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최근 증가 추세임.
- ▶ [기회 요인] 최근 인도네시아 내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 및 정부의 민관협력사업 독려, 국가 산업 발전전략 추진에 따른 협력 수요, 한류 등은 양국의 경제협력 진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.
 - 인도네시아 내 방대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나 공적재원의 한계로 민관협력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며, 이는 한국정부 및 경쟁력 있는 민간 건설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음.
 -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-2035를 통해 국제협력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의지를 나타냈으며, 이를 통해 지정된 10대 국가우선산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부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.
 - 인도네시아 내 한류는 영화, 드라마, 버라이어티, K-Pop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으며,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음.
- ▶ [과제] 인프라, 고부가가치 산업, 금융업 등에서 인도네시아의 협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, 한국의 강점에 기반한 수요 충족방안 마련, 정상 및 고위급 외교, 산업별 대화(dialogue) 연례화 등이 필요함.
 -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수요 증가 전망과 해당 분야 민관협력 독려 정책을 고려할 때, 수주지원을 위한 정상 및 고위급 외교가 필요함.
 -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국제산업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상 및 고위급 외교, 산업별 대화 정례화가 필요함.
 - 양국 금융기업 및 관련 정부부처 간 통합적인 공식 회의체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.



차 례

1. 한·인도네시아 협력 현황

- 가. 교역
- 나. 투자
- 다. 금융
- 라. 인적교류

2.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기회 요인

- 가.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수요 확대 및 민간협력사업 독려
- 나. 인도네시아 국가산업발전전략에 따른 협력 수요
- 다. 인도네시아 내 한류

3. 신남방정책의 과제

참고문헌

1. 한·인도네시아 협력 현황

가. 교역

■ 2017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교역 규모는 180억 달러로,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대 교역국,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7대 교역국임.

- 양국은 서로 주요 교역국이나,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교역 규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금액과 비중 측면에서 모두 큰 감소세를 기록함.
- 201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교역액은 308억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액의 2.9%를 차지했으나, 2016년 교역액 149억 달러, 비중 1.7%로 감소함.
- 2017년 양국간 교역액은 180억 달러로 반등했으며, 한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.7%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음.

그림 1.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교역 추이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

자료: UN Comtrade(검색일: 2018. 8. 24).

표 1. 한국 및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(2017년)

(단위: 십억 달러)

순 위	한국		인도네시아	
	국가명	금액	국가명	금액
1	중국	240.0	중국	57.6
2	미국	119.8	일본	31.9
3	일본	81.9	싱가포르	29.8
4	베트남	63.9	미국	26.0
5	홍콩	40.9	인도	18.0
6	호주	39.0	말레이시아	17.5
7	독일	28.2	한국	16.1
8	사우디아라비아	24.7	태국	15.5
9	싱가포르	20.6	호주	9.6
10	인도	20.0	필리핀	7.5
11	러시아	18.9	베트남	6.7
12	인도네시아	18.0	독일	5.9
전체		1052.1		326.2

자료: UN Comtrade(검색일: 2018. 8. 24).

■ 2017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, 편직물, 합성수지 및 고무 등 제조업 품목과 정제된 석유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품목은 유연탄, 천연가스, 원유, 기타 석탄 등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어,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음.

-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최대 수출품목은 선박으로 수출금액은 7.5억 달러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.0%로 집계됨.
- 인도네시아의 원유 정제역량 부족과 석유 순수입국 전환에 따라 한국에서 정제된 석유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

때문에 수출품목 중 2위와 6위를 각각 경유와 휘발유가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.

-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목은 1위부터 6위까지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, 상위 6대 품목 합계가 50% 이상을 차지함.
-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최대 수입품목은 유연탄이며 수입금액은 21.2억 달러, 비중은 22.1%를 차지함.

표 2.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(2017년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MTI	금액	비중
1	선박	7461	756	9.0
2	경유	1332	538	6.4
3	편직물	4360	520	6.2
4	합성수지	2140	477	5.7
5	합성고무	2150	325	3.9
6	휘발유	1331	299	3.6
7	열연강판	6132	298	3.5
8	냉연강판	6133	223	2.7
9	집적회로반도체	8311	181	2.2
10	기타 석유화학제품	2190	160	1.9
	기타		4,627	55.1
	합계		8,404	100.0

주: MTI 4단위 기준임.

자료: 한국무역협회(검색일: 2018. 9. 1).

표 3.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목(2017년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MTI	금액	비중
1	유연탄	1322	2,116	22.1
2	천연가스	1340	1,253	13.1
3	원유	1310	448	4.7
4	기타 석탄	1329	444	4.6
5	동광	1130	356	3.7
6	천연고무	0332	345	3.6
7	신발	5212	328	3.4
8	직물제의류	4412	285	3.0
9	식물성유지	0131	257	2.7
10	편직제의류	4411	253	2.6
	기타		3,486	36.4
	합계		9,571	100.0

주: MTI 4단위 기준임.

자료: 한국무역협회(검색일: 2018. 9. 1).

■ 한·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CEPA: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은 2012년 3월 한·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014년 2월까지 7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한 이후, 최근까지 추가 공식 협상 및 진전은 없음.

- 2014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·인도네시아 CEPA 7차 협상에서 양국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보장, 상품 분야 주요 관심품목 양허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임.¹⁾

나. 투자

■ 2017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6.7억 달러, 투자 건수는 346건으로 집계되었으며, 2014년 이후 투자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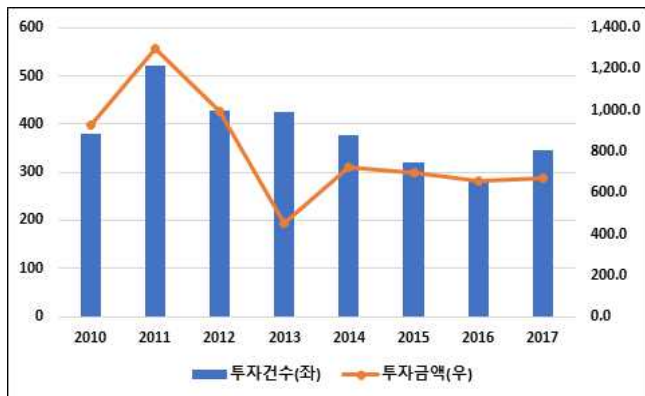
- 2011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은 13.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, 이후 2012~13년에 걸쳐 대폭 감소해 4.6억 달러를 기록함.
- 이후 투자액은 2014년 7.3억 달러로 반등했으며,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임.

1) 김지환(2014. 2. 28).

-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제조업, 광업, 금융 및 보험업에 집중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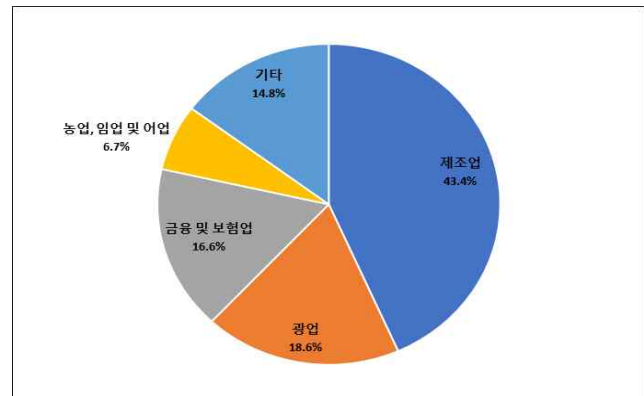
그림 2.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동향

(단위: 건, 백만 달러)



자료: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(검색일: 2018. 9. 1).

그림 3. 최근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투자업종(2010~17년)



자료: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(검색일: 2018. 9. 1).

■ 2017년 한국은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중 5위로 기록되었으며, 인도네시아는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중 34위를 차지함.

- 2017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금액은 20.3억 달러, 전체 대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액 중 비중은 6.3%를 차지함.
- 동일 연도 인도네시아의 대한민국 해외직접투자액은 413만 달러이며 전체 대한민국 해외직접투자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.

표 4.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(2017년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투자금액	비중
1	싱가포르	8,442	26.2
2	일본	4,996	15.5
3	중국	3,361	10.4
4	홍콩	2,117	6.6
5	한국	2,025	6.3
6	미국	1,993	6.2
7	네덜란드	1,489	4.6
8	말레이시아	1,214	3.8
9	모리셔스	1,057	3.3
10	버진아일랜드	845	2.6
	기타	4,703	14.6
	전체	32,240	100.0

자료: BKPM(2018), p. 20.

표 5.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(2017년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투자금액	비중
1	몰타	1,957	14.5
2	영국	1,870	13.9
3	네덜란드	1,469	10.9
4	일본	1,267	9.4
5	미국	1,253	9.3
6	홍콩	1,247	9.3
7	싱가포르	1,119	8.3
8	버뮤다	748	5.6
9	독일	410	3.0
10	캐나다	284	2.1
34	인도네시아	4	0.0
	기타	1,830	13.6
	전체	13,457	100.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(검색일: 2018. 9. 1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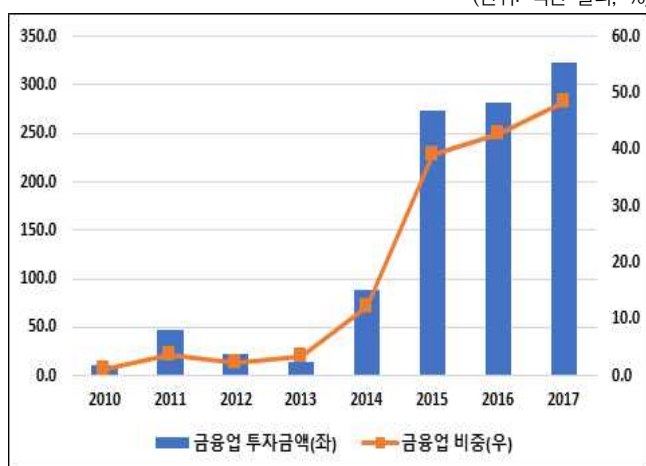
다. 금융

■ 최근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금융업 진출, M&A를 통한 합작회사 설립 등 양국간 금융 관련 협력이 큰 폭으로 증가함.

- 2013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금융업 부문 투자금액은 1,500만 달러, 전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금액 중 비중은 3.3%에 불과했으나, 2017년 3억 2,370억 달러, 전체 투자 중 비중은 48.4%로 가파르게 증가함.
 - 인도네시아 금융업은 2017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세부 업종 중 1위임.
 - 2015년 4월 한·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양국 금융회사 상호진출 협력조항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으며,²⁾ 이는 인도네시아 금융업 투자급증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됨.
-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금융기업 M&A는 총 11건으로 집계되었으며, 동 기간 전 세계의 인도네시아 금융기업 M&A 실적은 74건으로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금융기업 M&A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.³⁾
- 2018년 3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⁴⁾ 고위급 회의 정례화, 금융 인프라 협력 확대,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함.⁵⁾
 -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금융연수원과 인도네시아 금융자격기관 간 MOU가 체결되었으며, 해당 체결로 한국 금융회사 직원이 인도네시아 근무 시 취득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응시할 수 있게 됨.

그림 4. 한국기업의 대인도네시아 금융업 투자 추이(2010~17년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

자료: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(검색일: 2018. 8. 9).

표 6. 한국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(2017년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세부 업종	금액	비중
1	금융 및 보험업	323.7	48.4
2	제조업	192.9	28.8
3	도매 및 소매업	39.7	5.9
4	농업, 임업 및 어업	35.5	5.3
5	정보통신업	21.2	3.2
	기타	56.4	8.4
	전체	669.4	100.0

자료: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(검색일: 2018. 8. 9).

2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5. 4. 15).

3) Eikon(검색일: 2018. 8. 16).

4) 한국 금융위원장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 간 회의였음.

5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8. 3. 5).

표 7.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금융기업 M&A(2010~17년)

	공시일	인수기업	피인수기업
1	2011/3/4	신한은행	정보 부재
2	2012/2/1	미래에셋	NISP Sekuritas PT
3	2012/8/2	Korea Life Insurance Co Ltd	Transpacific Mutualcapita PT
4	2012/10/12	한화손해보험	Multicor Life Insurance PT
5	2012/12/20	신한은행	Bank Metro Express PT
6	2015/1/26	신한은행	Centratama Nasional Bank PT
7	2015/11/24	아프로 금융그룹 (Apro Financial Group)	Bank Andara PT
8	2015/11/30	신한은행	Bank Metro Express PT
9	2015/12/10	신한금융투자	Makinta Securities PT
10	2016/5/20	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	PT Putra Kary International
11	2017/12/12	한국투자증권	PT Danpac Sekuritas

자료: Eikon(검색일: 2018. 8. 16).

라. 인적교류

■ 2017년 당선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2014년 집권을 시작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(Joko Widodo)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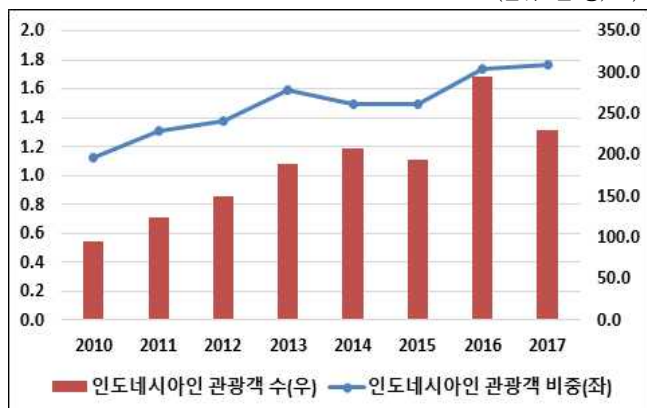
- 2017년 11월 한국 정상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이어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.
- 한국 정상은 2017년 취임 이후 동남아 국가 중 첫 번째 국빈방문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만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■ 민간 부문 인적교류의 지표 중 하나인 방문객 및 유학생 숫자로 살펴본 양국 인적교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최근 증가 추세임.

-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인은 2017년 약 23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, 전체 한국 방문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8%임.
- 2010년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 수는 약 9만 5,000명, 비중은 1.1%였으나, 2017년까지 관광객 수와 비중은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함.
- 2016년 인도네시아 방문 한국인은 약 38만 7,000명으로, 전체 인도네시아 방문 외국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3.4%임.
- 2010~16년 기간 인도네시아 방문 한국인은 약 27만 5,000명에서 약 38만 7,000명으로 증가했으나, 전체 인도네시아 방문객의 빠른 증가로 비중은 소폭 감소함.
- 한국 내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2012년 782명에서 2017년 1,418명으로 5년 만에 81.3% 증가했으며, 2017년 한국 내 국별 유학생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7위를 차지함.

그림 5.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인 추이(2010~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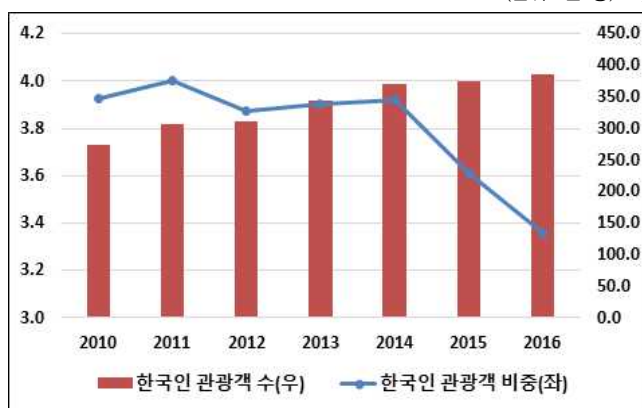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, %)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 9. 2).

그림 6. 인도네시아 방문 한국인 추이(2010~16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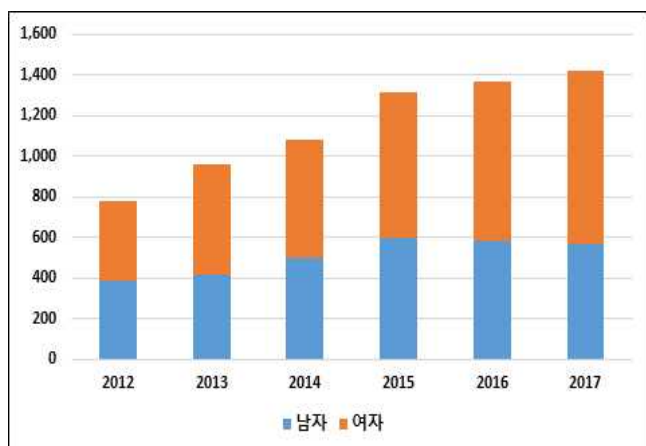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, %)



자료: CEIC(검색일: 2018. 9. 2).

그림 7. 한국 내 인도네시아 유학생 추이(2012~17년)

(단위: 명)



주: 전문학사 이상의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의 합계임.

자료: 국가통계포털(검색일: 2018. 9. 2).

표 8. 한국 내 국별 유학생(2017년)

(단위: 명, %)

순위	국가명	명수	비중
1	중국	66,674	49.4
2	베트남	27,563	20.4
3	몽골	7,784	5.8
4	우즈베키스탄	4,793	3.5
5	일본	2,464	1.8
6	파키스탄	1,461	1.1
7	인도네시아	1,418	1.0
8	인도	1,406	1.0
9	대만	1,211	0.9
10	미국	1,119	0.8
	기타	19,194	14.2
	전체	135,087	100.0

주: 전문학사 이상의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의 합계임.

자료: 국가통계포털(검색일: 2018. 9. 2).

2.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기회 요인

가.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수요 확대 및 민관협력사업 독려

■ 인프라 부족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.

- 인프라 개발은 2014년 당선한 조코 위도도 정부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며, 당선 이후에 최근까지(2018. 8)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로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임을 공표해옴.

- 정부는 중기 경제개발계획 2014~2019를 통해 도로, 철도 등의 길이, 항구 숫자, 공항의 수 등 구체적인 인프라 개발 목표치를 설정함.
- 또한 조코 위도도 정부는 2016년 2월 819조 루피아(62조 원) 규모의 30대 우선개발 인프라 사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을 약속함.⁶⁾
- 2018년 8월 연례 국정회의에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이 새로운 경제중심지들을 창출하고,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.⁷⁾
- 2017~18년 『글로벌 경쟁력 보고서』(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)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종합 지수를 동남아 역내 주요국인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태국보다 낮게 평가함.
- 인도네시아의 종합 인프라 지수는 4.5점으로 동남아시아 8개국⁸⁾ 중 4위 및 전 세계에서 52위를 기록했고, 동남아 내 경쟁국인 말레이시아(5.5점, 22위), 태국(4.7점, 43위)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(표 9 참고).
- 인프라 부문별로 공항이 7점 만점에 4.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도로와 항구 부문은 각각 4.1점과 4.0점으로 낮게 평가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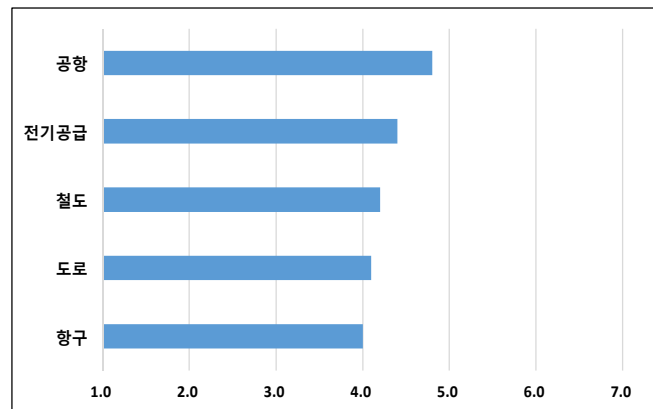
표 9. 동남아 주요국 종합 인프라 지수(2017~18년)

동남아 순위	국가명	인프라 지수	전 세계 순위
1	싱가포르	6.5	2
2	말레이시아	5.5	22
3	태국	4.7	43
4	인도네시아	4.5	52
5	베트남	3.9	79
6	필리핀	3.4	97
7	라오스	3.3	102
8	캄보디아	3.1	106

주: 137개국 평가, 인프라 지수는 7점 만점으로 구성됨.

자료: World Economic Forum(2017), p. 78, 149, 174, 192, 238, 262, 286, 308.

그림 8. 인도네시아 부문별 인프라 지수(2017~18년)



자료: World Economic Forum(2017), p. 149.

■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대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요에 따른 공적재원 부족으로 해당 부문의 민간협력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므로, 한국정부 및 민간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.

- 2015년 3월 정부는 인프라 부문 민간협력에 대한 대통령령 2015년 제38호를 발표하고, 이를 통해 민간협력사업의 범위, 사업주체, 절차, 정부지원 및 보증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.
- 2018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에 실시할 총 15개의 민간협력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했으며, 이 중 1개는 제안준비완료단계(Ready to Offer), 14개는 준비단계(Under Preparation)임.⁹⁾

6) 신민이(2016).

7) Wahyudi Soeriaatmadja(2018. 9. 3).

8) 해당 보고서 내 분석 국가로 미얀마와 동티모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9) Bappenas(2018).

- 사업 분야는 교통 5건, 상수도 2건, 보건 4건, 기타 4건 등 총 15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사업예측 규모는 32억 5,460만 달러임.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17년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으며,¹⁰⁾ 건설업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업임.

나. 인도네시아 국가산업발전전략에 따른 협력 수요

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3월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-2035(Master Plan of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2015-2035)를 발표했으며, 국제적인 산업협력 확대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명시함.

-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-2035는 향후 20년간의 산업정책의 지침이 될 예정이며, ‘강한 산업국가’를 비전으로 삼음.
 - ‘강한 산업’은 굳건하고 포용적인(fair) 산업구조 아래 국제적인 경쟁력 보유 산업 및 혁신 및 기술기반 산업으로 명시함.
- 해당 마스터플랜은 비전 달성을 위해 11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, 중소기업 발전, 산업단지 개발, 국제 산업협력 확대 등임.

표 10. 인도네시아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-2035 11대 전략

	내용
1	천연자원 기반 업스트림 및 중간재 산업 발전
2	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수출 규제
3	산업기술 습득 및 산업인적자원의 질 향상
4	산업개발지역(WPI: Wilayah Pengembangan Industri) 건설
5	중소기업 센터, 산업단지, 산업개발 중심지역(WPPI: Wilayah Pusat Pertumbuhan Industri) 건설
6	중소기업 역량 강화,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 우대정책 제공
7	산업설비 개발
8	녹색산업 육성
9	전략산업 개발
10	자국 상품 활용 증대
11	국제적인 산업협력 확대

자료: Ministry of Industry, Republic of Indonesia(2015), p. 20.

■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-2035를 통해 10대 국가우선산업을 지정했는데, 지정된 산업 내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협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.

10)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도자료(2018. 1. 18). 조사대상 국가는 Engineering News Record지의 2017년 세계 250대 건설기업과 225대 설계기업이 속한 20개국임.

- 선정된 10대 국가우선산업에는 그간 단순 광물자원 가공이나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.
- 10대 국가우선산업 분야에는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자동차 산업, 조선업, 전자 산업, 철강업, 석유화학 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.

표 11. 인도네시아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-2035 10대 국가우선산업

	분야	세부산업	한국의 경쟁력 보유 산업
1	식품산업	- 수산물 가공업 - 유제품 가공업 - 식물성 기름 가공업 - 과일 및 채소 가공업 - 사탕수수 기반 산업	-
2	제약, 화장품, 건강기구 산업	- 제약 및 화장품 산업 - 건강기구 산업	-
3	섬유, 가죽, 신발 산업	- 섬유 산업 - 가죽 및 신발 산업 - 가구 및 기타 목재 기반 산업 - 플라스틱 및 고무 가공 산업	-
4	교통산업	- 자동차 산업 - 열차 관련 산업 - 조선업 - 항공우주 산업	자동차 산업, 조선업
5	정보통신기술 산업	- 전자 산업 - 컴퓨터장비 산업 - 통신장비 산업	디스플레이, 반도체, 통신기기
6	발전소 산업	- 전기장비 산업	-
7	자본재, 부품, 산업서비스 산업	- 기계설비 산업 - 부품 산업 - 산업서비스	특수목적기계
8	농업 기반 업스트림 산업 (agro-based upstream industry)	- 유지화학 산업(oleochemical industry) - 농예화학 산업(chemurgical industry) - 소사료 산업(cattle feed industry) - 목재 기반 산업 - 펄프 및 제지 산업	-
9	기초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산업	- 철강 가공 및 제련 산업 - 비철강 기초 금속 가공 및 제련 산업 - 귀금속, 희토류, 핵연료 산업 - 비금속 광물 산업	철강
10	석유, 가스, 석탄 기반 화학공업 산업	- 석유화학 업스트림 산업 - 유기화학공업 - 비료 산업 - 합성 및 천연 고무 산업 - 기타 화학제품 산업	석유화학

주: 한국의 경쟁력 보유 산업은 2017년 발간된 산업연구원의 '한국 산업의 경쟁력 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(오영석 외)'에서 제시한 한국 산업 중 전 세계 시장점유율 최상위 10개 산업으로 함.

자료: Ministry of Industry, Republic of Indonesia(2015), p. 27; 오영석 외(2017), p. 40을 토대로 저자 정리.

다. 인도네시아 내 한류

■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는 한국 영화, 드라마, 버라이어티, K-Pop을 문화로서 즐기고 있으며,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.

- 2017년 인도네시아 내 유료 K-Pop 콘서트는 10회 이상 진행되었으며,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 한류 SNS도 다수 존재함(표 12, 13 참고).¹¹⁾
- 2017년 9월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‘2017 자카르타 한류박람회’를 개최했으며, 이를 통해 총 6,25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음.¹²⁾
 - 한국정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상생마케팅, 한류스타의 전략적 활용, 온-오프라인 연계 판촉을 목표로 해당 행사를 개최함.¹³⁾

표 12. 2017년 인도네시아 내 K-Pop 유료 공연

	공연명	출연	날짜
1	Flight Log: Turbulence	GOT7	2017.2.28
2	WINGS Tour	BTS	2017.4.29
3	We The Fest 2017	Epik High	2017.8.12
4	Between Us	CNBLUE	2017.8.15
5	Day6 Live & Meet	Day6	2017.8.28
6	Music Bank in Jakarta	GFRIEND 외 다수	2017.9.2
7	ACT III: M.O.T.T.E	G Dragon	2017.9.3
8	Diamon Edge	Seventeen	2017.9.23
9	White Night	Taeyang	2017.10.13
10	Saranghaeyo Indonesia	Dean 외 다수	2017.11.25

자료: 한국콘텐츠진흥원(2017. 12. 20), p. 6.

표 13. 인도네시아 내 주요 한류 SNS

SNS 명	계정	구독자 수
페이스북	K-POP dan K-Drama Indonesia	381,653
	Kpop Chart	174,692
	PENYUKA DRAMA KOREA	149,229
인스타그램	wowfakta_kpop	547,000
	dagelan_kpop	339,000
	wowkdrama.id	237,000
	koran_hallyu	193,000
트위터	TheDramaKorea	298,000
	KoreanWaveINA	124,000
	Korean Drama Movie	118,000

자료: 한국콘텐츠진흥원(2017. 12. 20), p. 7.

11) 한국콘텐츠진흥원(2017. 12. 20).

12) 박은서(2017. 9. 8).

13)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17. 9. 5).

3. 신남방정책의 과제

■ [국가 중요성]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투자 분야의 경제협력 정도가 높지 않지만, 인구 및 경제 규모면에서 동남아시아 전체의 40%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국가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로서 의미를 지님.

- 본문 [표 1]과 [표 4]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제1위, 제2위 교역대상국은 중국과 일본으로 한국은 7위에 그쳤으며,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제2위, 제3위 역시 각각 일본과 중국으로, 한국은 5위에 그침.
- 신남방정책이 경제 및 외교 다변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및 투자 증가는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는바,¹⁴⁾ 동남아시아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진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.
-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방안으로 CEPA 재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,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.
 - 2012년 3월 시작된 한·인도네시아 CEPA 협상은 2014년 2월 제 7차 협상에서 직접투자 보장, 주요 관심품목 양허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 이후¹⁵⁾ 최근까지 중단됨.
 - 반면 일본·인도네시아 EPA는 2008년 7월 발효되어, 일본정부는 발효 즉시 대인도네시아 수입품목 90%에 대해 관세를 면제했으며, 인도네시아는 대일본 수입품목 93%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함.¹⁶⁾

■ [전반] 인프라, 고부가가치 산업, 금융업 등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 수요가 전망되므로, 한국의 강점에 기반한 수요 충족 방안을 마련해야 함.

-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수요 충족방안을 신남방정책 추진 로드맵에 포함하고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.
- 또한 인도네시아 산업별 경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지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요구됨.

■ [인프라 개발]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수요 증가 전망과 해당 분야 민간협력 독려 정책을 고려할 때, 수주 지원을 위한 정상 및 고위급 외교가 필요함.

- 인도네시아 인프라 부문의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바, 한국 건설기업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.
 - 2011년 반등했던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건설수주가 2012년 이후 감소 및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2010~11년 기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 발전사업 등 인프라 사업관련 보증을 확대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.¹⁷⁾
 - BMI는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~7%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(2017년 1,410조 루피아(107조 원) → 2022년 2,431조 루피아(185조 원)).¹⁸⁾

14) 신민균, 신민이(2018).

15) 김지환(2014. 2. 28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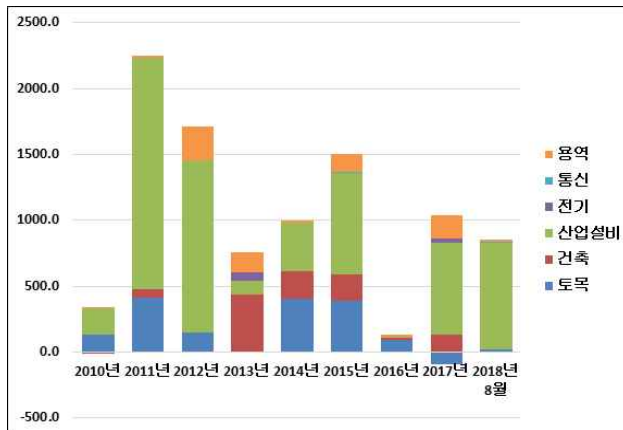
16) 복덕규(2018. 8. 7).

17)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이승훈 연구위원 인터뷰(2018. 9. 5).

18) BMI(2018), p. 4.

그림 9. 국내 기업 인도네시아 건설수주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(검색일: 2018. 9. 2).

그림 10.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전망

(단위: 조 루피아, %)



자료: BMI(2018), p. 4.

■ [산업 고도화] 인도네시아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국제산업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상 및 고위급 외교, 산업별 대화 정례화가 필요함.

-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정한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-2035의 10대 국가우선산업 내에 자동차 산업, 조선업, 전자 산업 등 한국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다수 포함됨바, 한국의 산업 고도화 경험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한국이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임.
- 2018년 8월 개최된 '제1차 한·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'와 같이 유망 협력산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산업대화(dialogue) 확대 및 정례화 추진을 통해 산업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임.

■ [금융 협력]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금융업 분야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양국 금융기업 및 관련 정부부처 간 통합적인 공식 회의체가 부재한바,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- 현재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금융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TO 제한 규제, 신규 금융상품 출시 허가에 오랜 시간 소요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나,¹⁹⁾ 이를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식으로 논의할 창구가 부재함.
- 2018년 3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간 논의되었던 고위급 회의 정례화 실현과 함께 다층적인 협의체 마련을 통해 금융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. KIEP

19) 저자 현지출장 인터뷰(2018. 8. 27~28).

참고문헌

[국문자료]

- 김지환. 2014. 「한·인니 CEPA 7차 협상 마무리...주요 쟁점 입장차 상존」. 『경향비즈』. (2월 28일)
- 금융위원회. 2015. 「한-인니 금융당국간 정례회의 참석 및 금융감독 협력증진을 위한 MOU 체결」. 보도자료(4월 15일)
- 금융위원회. 2018. 「최종구 금융위원장, 한국·인도네시아 금융협력 강화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, 홍콩 방문」. 보도자료. (3월 5일)
- 박은서. 2017. 「자카르타 한류박람회 참가 中企들 700억원 수출상당 실적」. 『동아일보』. (9월 8일)
- 복덕규. 2008. 「인도네시아-일본 경제협력협정(EPA) 발효 및 영향」. KOTRA. (8월 7일)
- 신민금, 신민이. 2018. 「말레이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」. KIEP 오늘의 세계경제, 제 18-31호. 대외경제정책연구원.
- 신민이. 2016. 「인도네시아, 30대 인프라 프로젝트 선정」. KIEP 동향세미나.
- 오영석, 박성근, 박유미, 장동혁, 맹지은, 이임자. 2017. 「한국 산업의 경쟁력 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」. 산업연구원.
- 산업통상자원부. 2017. 「유망 소비재 · 서비스, 중화권 넘어 아세안(ASEAN) 등 포스트 차이나 시장 진출 본격화: '2017 자카르타 한류박람회' 개최, 대대적 한류연계 마케팅 추진」. 보도자료. (9월 5일)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. 2018. 「2017년 대한민국 건설산업 경쟁력은 세계 9위」. 보도자료. (1월 18일)
- 한국콘텐츠진흥원. 2017. 「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동향」, 4호.

[영문자료]

- Bappenas. 2018. *Public-Private Partnerships: Infrastructure Projects Plan in Indonesia*.
- BKPM. 2018. *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V and January-December 2017*.
- BMI. 2018. *Indonesia Infrastructure Report, Q3*.
- Ministry of Industry, Republic of Indonesia. 2015. *Industry Facts & Figures*.
- Wahyudi Soeriaatmadja. 2018. "Infrastructure developments aim to unite Indonesia, says Jokowi in annual Parliament address." (August 16)
- World Economic Forum. 2017. *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-2018*.

[웹사이트]

- 국가통계포털. <http://kosis.kr/index/index.do>(검색일: 2018. 9. 2).
-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. <http://www.motie.go.kr/motie/in/it/investstats/investstats.jsp>(검색일: 2018. 9. 1).

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. <https://stats.koreaexim.go.kr/odisas.html>(검색일: 2018. 9. 1).

한국무역협회. <http://www.kita.net/>(검색일: 2018. 9. 1).

해외건설종합서비스 수주통계. <http://www.icak.or.kr/>(검색일: 2018. 9. 2).

CEIC. <https://www.ceicdata.com/en>(검색일: 2018. 9. 2).

Eikon(검색일: 2018. 8. 16).

UN Comtrade. <https://comtrade.un.org/db/default.aspx>(검색일: 2018. 8. 24).